여시아문

불기 2543년 (서기 1999년) 10월 6일 수요일 제 240호 현대불교

이 달 의 책

장자

김달진 번역

A5신 534쪽
12000원
문학동네

김달진 시인이 번역한 장자는, 이미 30여 년 전 문고판으로 나왔을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사상적 비상의 날개가 된 바 있다. 그것을 다시 다듬어 새로이 펴 낸 것이 이 책인데, 각 편의 첫머리에 붙인 선사들도 장자를 읽는 즐거움을 한껏 고양시킨다.

번역의 어려움 때문에 쉽게 장자의 세계로 들어서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크게 반가울 책이다.

그대가 본 이 거리를 말하라 — 서현의 우리 도시 기행

서현 지음

A5신 302쪽
12000원
효형출판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거지에서 나타나듯이, 거리는 도시의 격을 드러내는 표상이다. 그렇다면 서울의 종로·세종로·인사동, 부산의 광복동, 광주의 금남로 같은 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일까?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물음에 대한 건축가 서현의 대답이다.

머리말에서부터,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 얼마나 허구와 위선으로 가득차 있는지를 일깨워 주는, 이른 가을 바람처럼 상쾌한 책이다.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

田文鎭 지음 / 이재정 옮김

A5신 296쪽
7500원
예문서원

유교라는 억압이 강요한 죽음(자살)을 선택한 중국 명·청 시대 여인들이 이야기이다. 그렇다고 이 책의 성격을, 유교의 강요된 권위에 도전하고 여성의 수난을 격앙된 목소리로 토로하는 책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시종일관 냉정을 잃지 않고 여성 자살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고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낙방한 남성들의 스트레스 분출구로서 여성 정절이 강요되었다는 식의 분석은 눈을 번쩍 뜨게 한다.

어리석은 호랑이

이종선 엮음

A5신 192쪽
4500원
샘터

창작 동화와 달리 전래 동화는, 그것을 낳은 시대와 그 시대를 살다간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재미와 감동의 공명이 크다. 창작자 한 사람의 상상력에 의존한 것이 아닌 까닭이다.

주로 우화 형식인 이 책의 이야기들은, 인도 벵갈 지방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것들이다.

기발한 상황 설정과 극적인 반전은 유쾌한 웃음과 함께 향기로운 여운을 남긴다.

한국불학사

고영섭 지음

A5신 336쪽
10000원
연기사

불학을 한국인의 정체성과 인식틀이 투영되어 있는 사유체계로 보는 학문적 태도에 입각한 한국 불학 통사이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사상사' 또는 '한국철학사' 기술의 밑그림으로서 한국불학사(신라·고려시대편)를 정리한다.

한국 불학에 대한 개관에 이어 신라 고려의 불교 사상가를 중심으로 한국 불학의 정체성을 찾아나간다.

이집트 사자의 서

서구석 편저

A5신 382쪽
14000원
문학동네

고대 이집트인의 죽음 의식과 내세관의 집약이라 할 '사자(死者)의 서(書)'를 중심으로 삶과 죽음의 신비를 탐색한 책이다.

『사자의 서』는 전체가 주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주문을 아는 자는 내세에서 영원을 얻을 것이다."는 류의 주문이 그 핵심이다. 따라서 『사자의 서』는 영원을 희구하는 모든 인간들의 '부활의 서'이기도 하다.

수능엄경정맥소 (首楞嚴經正脈疏)

연진 옮김/ 무비 감수

A5신 588쪽
20000원
도서출판 법공양

능엄경의 대표적 주석서 중 하나인 진감(眞鑑) 스님의 '정맥소(正脈疏)'를 처음으로 번역한 책이다.

이 '정맥소'의 특징은, 수십 종 되는 주석서들을 꼼꼼히 살펴 뛰어난 점은 더욱 부각시키고 오류는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인 데 있다. 그래서 '정맥소'는 다른 어떤 주석서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생각 돌이키면 삶이 즐거운 불교 이야기

김용덕 지음

A5신 302쪽
8000원
불일출판사

오래전부터 불교 설화에 많은 관심을 보여온 김용덕 교수가, 이곳저곳의 자료를 모으고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불교 설화를 쉬운 우리말로 갈무리한 책이다. 설화의 배경이 되는 사찰이나 관련 사진을 중간중간에 곁들여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 동안 나왔던 불교 설화집들이 보여온 어설픈 문장이나 엉성한 구성 같은 부분을 찾아 볼 수 없어서 안심하고 자녀들에게 권할 만하다.

달라이 라마 예수를 말하다

달라이 라마 강의
류시화 옮김

A5신 252쪽
7800원
나무심는사람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영국 카톨릭 신부들의 초청으로 사흘 동안 북런던의 한 대학에서 성경 복음서에 담긴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강의한 것을 묶은 책이다.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달라이 라마 자신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의 강의는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이다. 철저한 불교 수행자로서의 혜안이 성경의 메시지를 꿰뚫어 보기 때문이다.

◀스테디셀러 찾아가기▶

육조단경(六祖壇經)

육조 혜능 어록 / 광덕 역주
A5신 396쪽 / 값12000원

나 여기 '있음'이, 저 푸른 하늘 같을 수는 없을까? 아니, 하다못해 돌 틈 사이에서 간신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풀포기 같을 수만 있어도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어느 때든 그들은 — 엄격히 말하면 '나'를 제외한 모든 생명들은 — 자신의 존재에 대해 회의하지 않는다.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발버둥질하지도 않는다. 높다고 뻐기지 않고 낮다고 스스로를 업수이 여기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여여(如如)하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못하다. 쉽게 분노하고, 좌절하고, 시샘한다. 섣부른 희망에 달뜨고, 터무니없는 자부심으로 우쭐하고, 뜬구름 같은 이름을 좇아 발 동동 구르기도 한다. 만사에 주눅이 들어 굴신하다가도 뾰족한 자존심에 찔려 피를리기도 한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이 책 『육조단경』을 편다.

"무상보리를 배우고자 할진댄 초학자를 업수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 낮고 낮은 사람에게도 높고 높은 지혜가 있고, 높고 높은 사람에게도 낮고 낮은 지혜가 있는 법. 만약 사람을 업신여기면 가없는 죄가 됨을 알라."(79쪽)

내 근거없는 오만의 머리통에 철퇴가 내려지는 순간이다.

"선지식아,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행하느니라. 또한 미혹한 사람이 있어,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

선지식아,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만 말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행하느니라.

며, 스스로를 가리켜 크다고 일컫는다면 이러한 무리와는 더불어 말도 하지 말라. 지견(知見)이 삿되기 때문이니라."(109쪽)

내 '앎'과 '삶'이 분열을 일으킬 때, 내 공허한 앎이 거리를 배회할 때, 다시 나를 추스리게 하는 대목이다.

"선지식아, 만약에 깊은 법계와 반야삼매에 들고자 하면 모름지기 반야행을 닦고 『금강반야경』을 지송하라. 곧 견성하리라. 마땅히 알라. 이 공덕이 무량 무변함을 경 가운데서 분명히 찬탄하셨으니 이를 다 말할 수 없느니라."(116쪽)

눈앞의 이익과 시비 분별에 휩쓸려 정신이 혼미해질 때 떠올리는 금강경의 한 구절,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應無所住 而生其心)." 육조 스님이 언하에 깨달았다는 바로 그 구절이다.

이렇듯 나는 갈피를 잃을 때마다 이 책을 편다. 특별히 어떤 구절을 찾을 것도 없이, 펼쳐지는 대로 다가간다.

정말 '책 속에 길이 있다'면 바로 이런 책을 두고 하는 말일 것 같다.

덧붙임:이 책에 관한 서지 정보나 혜능 스님에 대한 소개는 생략한다. 다만, 선사의 어록에 '경'이라는 말이 사용된 유일한 경우라는 사실만 군더더기로 보탠다.

윤제학 / 도서출판 여시아문 편집장 jhyun@buddhapia.com

불교계 출판계 진단

제1회 '새글 공모전'의 의의

불교계 출판계는 '침체됐다' '읽을 만한 책이 없다' 등의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그 근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하는 데는 인색하다. 사실 교계의 출판의 자원은 다른 종교에 비해 무궁무진하다. 부처님이 설한 팔만 사천의 법문을 비롯해 수많은 고승 이야기, 문화와 문화재, 신행담 등의 출판거리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하지만 대형 서점에 가보면 불교 코너를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러면 불교 출판계는 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 수준에만 머물고 있는 것일까. 이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불교 전문 작가 발굴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출판거리는 많지만 심도 있고 세련되게 풀어낼 역량 있는 불교 전문 작가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서출판 민족사에서 창사 20주년을 맞아 실시하는 '제1회 새글 공모전'은 뒤늦게나마 박수를 보내고 싶다. 각 출판사들이 불교 소재의 출판물을 기획 출판할 때 몇몇 작가들에게 의존하는 현실과 좋은 기획을 해 놓고도 마땅한 작가를 찾지 못해 사장되는 현실을 볼 때 이번 새글 공모전에 거는 기대는 크다. 공모전의 규모가 작든 크든, 불교 출판계의 최대 과제의 하나인 작가 발굴의 서막이 열렸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학술서와 시·소설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참의력 있는 작품을 선정한다고 한다.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다른 출판사나 교계 단체에서 작가 발굴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잠깐 독서

실크로드가 남긴 역사세계를 찾아 (1,2)

김상은 지음 / 크라운판
304 344쪽 / 각 각 9000원
주이상간행 위임

이 책은 동양과 서양의 건축과 문화의 원류를 찾고자 시작된 실크로드 여행기이다.

실크로드는 동서양의 고대 세계를 잇는 통로란 뜻으로, 19세기 말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호펜의 저서 『중국』이란 책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비단이 운반되었던 중국의 중원에서 서역에 이르는 길을 비단길이라 표현한 데서 시작된 것이다. 오아시스 도시를 잇는 '오아시스의 길'로도 불리웠으며, 대상로(隊商路)로 개척된 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난 15여 년간 실크로드와 연관된 여러 나라(중국,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네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이집트, 튀니지 등)를 두루 다니며 관념적으로 인식되고 있던 실크로드의 실체를 하나하나 들춰내고 있다.

이 책은 동양과 서양의 건축과 문화의 원류를 찾고자 시작된 실크로드 여행기이다.

일반적으로 실크로드는 중국의 장안에서 지중해의 로마를 잇는 통로만으로 인식되어 동서 교류만 강조되었다. 하지만 이 통로는 동서뿐만 아니라 남북의 교역로로도 얽려 있는 등 여러 갈래로 얽혀 있었다.

한없이 펼쳐진 사막과 낙타의 움직임, 오아시스 마을과 바자르(시장)와 같은 고정된 이미지로 다가가는 실크로드에 대한 생각은, 지역과 환경에 바탕을 둔 서구의 지리학적 접근이어서, 대규모 석유화학공단이 들어서 그 신도시가 세워진 변화된 실크로드에는 더이상 맞지 않고, 또한 유물로서의 겉모습에 언제까지나 묶어둘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시각이다.

다울다티 로이 지음/ 정보석 옮김
A5신 414쪽/ 값 8000원/ 뿌리당

「작은 것들의 신」은 인도인의 삶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그 내밀한 세계를 들여다보게 하는 책이다. 이 작품은 인도의 편협된 신앙과 위선에 대해 날카롭게 풍자하면서, 자연에 대한 인도인들의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책을 말한다

『작은 것들의 신』
사회적 편견, 인간과 사회의 이면상을 날카롭게 풍자한 소설

김종근 기자

인도의 사상, 철학, 종교는 오랜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아주 특별한 영혼의 결정체다. 척박한 땅, 단조로운 기후 등 최악의 자연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이 인도의 사상이며 문화이다.

인도는 오랜 역사만큼의 뿌리 깊은 문화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인도인들은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와 생활상을 유지하며 묵묵히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인도 답사 및 여행기, 문화 관련서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출간 사흘만에 초판이 매진되어 세계적인 화제를 뿌리며 당시 세계 문학계의 최대 사건으로 꼽혔던 『작은 것들의 신』은 인도인의 삶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그 내밀한 세계를 들여다보게 하는 책이다.

이 작품은 인도의 편협된 신앙과 위선에 대해 날카롭게 풍자하면서, 자연에 대한 인도인들의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저자는 1997년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을 수상한 아룬다티 로이. 인도 작가로는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랐던 비디아 다르 나이폴, 샐먼 루시디에 이어 세번째 수상자로서, 식민지 언어로 영국을 정복한 또 한 명의 인도 작가가 되었다.

『작은 것들의 신』은 저자가 성장한 곳이자 공산당이 정권을 잡았던 케랄라 주의 아예메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곳은 기독교, 힌두교 등 여러 종교들과 공산주의가 공존하면서 종교적 갈등과 정치적 소요가 상존하는 곳이다. 시기적으로는 1969년 공산주의와 나살라이트(인도의 극좌 정당) 당원들의 폭동이 확산되어 전통적 카스트 제도를 뒤흔들며 두려움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어난 두 주간의 이야기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비극을 맞이하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기억과 체험을 공유하는 이란성 쌍둥이 에스타와 라헬의 눈을 통해 펼쳐진다. 이 소설에는 백인들에게 아첨하는 친영파들, 영국적 소아성애의 망령, 무자비한 가부장의 폭력, 잘난 공산적 남성 우월주의 등과 같은 전통적 신분 제도인 카스트를 비롯하여 인도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이슈들이 제시된다. 이를 통해 편협성과 질시, 사회적 편견 등 인간과 사회의 이면상이 통렬하게 풍자된다. 저자는 불의에 대항하는 고양된 감각, 평생 동안 착취당한 사람들에게서 생겨나는 고집스럽고 무모한 기질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집요하게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주제 의식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을 돋보이게 하는 요인은 무엇보다 독특한 구성 방식과 문체에 있다. 저자는 이 소설의 장들을 순차적으로 쓰지 않고, 기억을 역전시키면서 서술에 감도는 불길한 전조를 통해 미래를 예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실험적인 문장과 패러디와 반복과 놀라운 비유를 통해 독창적으로 형성되었다.

저자는, "이 책은 장소나 관습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물과 땅과 공간에 관한 것이다." "어떤 특정한 사회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인간 본성에 관한 것이다."고 말한다.

이 소설의 진정한 가치는 언어 구사에 있다. 로이는 침을 삼키게 할 만큼 뛰어난 스타일리스트다. 마치 살아 있는 생명처럼 꿈틀거리는 생생한 문장은 잊지 못할 첫사랑의 연인처럼 기억의 한 켜를 이룬다.

여시아문 추천 법공양 도서

❶ 현대인과 선 — 가마다 시게오, 기노 가즈요시 지음/ 양기봉 옮김/ A5신 318쪽 대원정사/ 값 7,000원
❷ 선이야기 — 임지 저/ A5신 390쪽/ 운주사/ 값 8,000원
❸ 선 깨달음의 길 — 오고산 지음/ A5신 354쪽/ 반야샘/ 값 8,000원
❹ 선으로 가는 길 — 석지현 지음/ A5신 380쪽/ 일지사/ 값 9,000원
❺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 한형조 지음/ B6 변형 334쪽/ 여시아문/ 값 6,000원
❻ 초보자를 위한 화두 참선 수행기 — 조정연 지음/ A5신 272쪽 / 불광 / 값 7,000원
❼ 살아 있는 선 - 오쇼 라즈니쉬 백일록 강의 — 류원장 옮김/ A5신 376쪽/ 성하출판 값 9,000원
❽ 선, 심매로 가는 길 — 일타 스님 지음/ A5 224쪽/ 해인사 출판부/ 값 4,000원
❾ 참선의 길 — 대혜 종고 선사 지음/ 장순용 옮김/ A5신 272쪽 / 고려원/ 값 7,500원
❿ 선의 사상과 역사 — 야나기다 세이잔 지음/ 추만호, 안영길 옮김/ A5신 296쪽 민족사 / 값 6,000원

여시아문 통신

현대불교신문의 불서 정보란 '여시아문'에 신간 소개를 원하는 출판사에서는 보도 자료와 함께 신간을 보내 주십시오. 좋은 책이 독자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시아문 편집부 —

통신판매 전화나 팩스로 주문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나 우송해 드립니다.
* 8,000원 이상은 우송료 무료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732-1521
팩스: (02)737-0696